■수능 점수대별 지원 전략

중·상위권, 안정·소신 나눠서 지원을

최상위권 논술·면접 철저 대비해야
중·하위권은 지방대 틈새 노려볼만

■2008 수능 영역별 1등급 학생수 및 비율(%)

구분	빈도	비율	
1개 영역 이상	49,048	9.77	8.91
2개 영역 이상	15,017	2.99	2.73
3개 영역	3,747	0.75	0.68
응시자 수	-	501,989 (3개 영역)	550,588 (전체)

■언수외탐 4개 영역 1등급 빈도 및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언+수+외+사탐(4과목)	454	0.17	0.08
응시자 수	-	261,341 (4영역 - 사탐)	550,588 (전체)
언+수+외+과탐(4과목)	190	0.11	0.03
응시자 수	-	174,220 (4영역-과탐)	550,588 (전체)
언+수+외+직탐(3과목)	0	0.00	0.00
응시자 수	-	26,686 (4영역-직탐)	550,588 (전체)

■언수외탐·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 1등급 빈도 및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언+수+외+사탐(4과목)+제2	245	0.30	0.04
응시자 수	-	82,353 (5영역-사탐)	550,588 (전체)
언+수+외+과탐(4과목)+제2	0	0.00	0.00
응시자 수	-	2,776 (5영역-과탐)	550,588 (전체)
언+수+외+직탐(3과목)+제2	0	0.00	0.00
응시자 수	-	733 (5영역-직탐)	550,588 (전체)

■수능 등급별 주요대 지원 범위 〈유웨이 중앙교육 제공〉

평균등급	모집군	인문	평균등급	모집군	자연
1	가	대전대(한의예), 고려대(법과대학, 경영대학), 연세대(경영계열)	1	가	가톨릭대(의예), 경희대(한의예), 고려대(의과대학), 성균관대(의예), 연세대(의예, 치의예), 원광대(한의예)
	나	서울대(법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계열, 국어교육)		나	서울대(의예), 울산대(의예)
				다	단국대천안(의예), 동국대경주(한의예), 아주대(의학부), 원광대(한의예)
1.1	가	고려대(정경대학), 성균관대(경영학(글로벌)), 연세대(법학계열, 사회과학계열)	1.1	가	경원대(한의예), 연세대원주(의예), 영남대(의예), 충북대(의예), 한양대(의예), 동국대 경주(한의예)
	나	서울대(인문계열1, 외국어교육계열, 사회교육계열, 인문계열2, 교육학국민윤리교육과군, 인류지리학과군), 성균관대(경영학(글로벌))		나	대전대(한의예), 서울대(약학대학), 세명대(한의예), 중앙대(의학부), 충북대(의예)
				다	순천향대(의예), 상지대(한의예), 세명대(한의예), 원광대(치의예), 우석대(한의예)
1.2	가	고려대(언론학부), 연세대(언론홍보영상학부)	1.2	가	동신대(한의예), 동아대(의예), 원광대(치의예), 인제대(의예), 전남대(의예)
	나	서강대(경영학부, 경제학부), 서울대(소비자아동학부, 농경제사회학부), 성균관대(법학)		나	계명대(의과대학), 단국대천안(치의예), 대구가톨릭대(의예), 서울대(생명과학부, 전기공학컴퓨터공학부군), 우석대(한의예), 을지대(의예), 전남대(의예)
				다	강릉대(치의예), 대구가톨릭대(의예), 동국대경주(의예), 영남대(의예), 원광대(의예), 계명대(의과대학)
1.3	가	고려대(국제학부, 영어교육, 국어교육, 역사교육), 성균관대(법학), 연세대(상경계열)	1.3	가	원광대(의예)
	나	서강대(사회과학계, 커뮤니케이션학부), 성균관대(사회과학계열)		나	서울대(화학생물공학부)
				다	
1.4	가	고려대(국제어문학부, 인문학부, 교육, 지리교육), 성균관대(사회과학계열), 연세대(외국어문학부, 인문학부, 생활과학부), 한양대(법학)	1.4	가	서남대(의예), 성균관대(약학), 포항공대
	나	동국대(경찰행정), 서강대(법학계)		나	고신대(의예), 서남대(의예), 서울대(기계항공공학부, 수학교육, 물리천문학부, 수의예), 중앙대(약학부)
	다	한양대(법학), 한국외대(영문, 영어)		다	
1.5	가	경북대(영어교육), 고려대(국제어문학부, 인문학부, 교육, 지리교육, 식품자원경제), 동국대(경찰행정), 부산교대(초등교육-여), 부산대(국어교육, 영어교육), 연세대(생활과학부-인문), 이화여대(국어교육, 영어교육), 한국교원대(국어교육, 초등교육, 영어교육), 한양대(영어교육, 국어교육, 경영학부, 사회과학부)	1.5	가	경희대(약학), 숙명여대(약학부), 충남대(약학부), 충북대(약학제약학과군), 성균관대(반도체시스템), 전남대(약학부), 부산대(약학), 연세대(생명과학공학부, 화공생명공학부)
	나	서강대(국제문화계 I, 국제문화계 II), 서울시립대(세무), 중앙대(신문방송학부, 광고홍보학과), 한국외대(영어교육)		나	서울대(화학부, 재료공학부), 한국정보통신대(공학부), 전남대(약학부), 충남대(약학부), 충북대(약학제약학과군), 중앙대(약학부)
	다	경희대(관광학부), 한국외대(중국어, 일본어, 자유전공학부)		다	숙명여대(약학부), 원광대(약학)
1.6	가	경북대(국어교육), 경희대(관광학부), 부산교대(초등교육-남), 성균관대(인문과학계열), 이화여대(초등교육, 언론홍보영상학부), 한양대(정보통신학부-인문, 건축학부-5년제)	1.6	가	고려대(수학교육, 생명과학계열학부), 연세대(전기전자공학부), 영남대(약학부), 학국교원대(수학교육)
	나	서강대(인문계), 서울교대(초등교육), 서울시립대(도시행정), 성균관대(인문과학계열), 중앙대(영어교육), 한국외대(영문, 영어, 영어통번역)		나	대구가톨릭대(약학부), 서울대(공학계열,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 건설환경공학부, 과학교육계열, 의류식품영양학과군), 조선대(약학과)
	다	경희대(법학부, 경영학부), 학국외대(경영학부)		다	건국대(수의예), 대구가톨릭대(약학부), 영남대(약학부)

수능 성적이 7일 발표됐다. 수험생은 이제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결정해야 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이 '가'군 '나'군 '가·나'군은 12월 20~25일, '다'군,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 군은 12월 21~26일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전체 학생 중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입시전문기관인 김영일교육컨설팅과 고려학력평가연구소가 권하는 수능 점수대별 지원 전략을 살펴본다.

◇**최상위권**=서울대와 연·고대 상위권 학과 및 지방 소재 의예·한의예 및 약학계열 학과들에 지원 가능하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주로 가군과 나군에 많이 몰려 있어 사실상 2차례의 지원 기회가 있으며 이 점수대는 수능 성적 반영방법, 수능 가중치 적용 여부, 학생부 성적 및 논술고사 등 가능한 한 모든 변수를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수능의 탐구영역 과목 수가 3~4과목으로 많아 탐구영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편이다.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학의 모집단위별 지원자끼리 비교해 보면 수능 성적은 거의 동일하므로 앞으로 남은 논술고사와 면접·구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위권**=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와 지방 국립대 상위권 학과에 지원 가능하다.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입시 일자가 가군과 나군에 많이 몰려 있어 가군과 나군의 대학 중에서 1개 대학은 합격 위주로 선택하고 나머지 한 개 대학은 소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최상위권의 집중과 분산 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를 고려한 소신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이 많고 논술고사 반영 비율도 10% 정도 되기 때문에 지원 시 논술고사 예상 점수를 염두에 두고 논술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위권**=가·나·다군 모두 복수지원이 가능해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수험생이 가장 많이 몰려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와 수능으로만 전형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거의 없으므로 이미 확정된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잘 따져봐야 한다.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거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을 살펴본 뒤 한곳 정도는 소신 지원을 해야 한다. 본인의 수준에 맞는 대학에 3차례 복수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하위권**=4등급 정도 학생들은 주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중 비교적 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점수대의 학생들은 지원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의 장기 전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에 지원해서 합격하기 부담스런 경우는 틈새를 노려 수도권에 한곳은 소신 지원을 하고 두 곳은 지방대 쪽에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위권 수험생들이 합격 위주의 하향 지원을 한다면 이 점수대에서는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합격선이 올라갈 수도 있다.

◇**하위권**=4년제는 지방대에서 틈새를 노려보는 지원전략을 세우고 전문대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위권의 합격선은 상위권과 중위권의 집중과 분산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므로 원서 마감일까지 끈기를 가지고 지원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 2개 대학 정도는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 합격 위주의 선택을 하고 나머지 1개 대학은 다소 소신 지원하는 것이 좋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08 정시 수능 대학별 우선선발 현황

대학명	모집시기	전형방법
건국대	다	수능 100%
경희대	다	우선선발(50%) : 수능100% 일반선발(50%) : 수능40% + 학생부50% + 논술10%
고려대	가	우선선발(50%) : 수능100% 일반선발(50%) : 수능40% + 학생부50% + 논술10%
단국대	나	우선선발(40%) : 수능100% 일반선발(60%) : 수능50% + 학생부50%
동국대	가	수능100%
서강대	나	우선선발(30%) : 수능100% 일반선발(70%) : 수능50% + 학생부40% + 논술10%
서울대	나	1단계(2~3배수) : 수능100% 2단계 : 학생부50% + 면접20% + 논술30%
서울시립대	나	우선선발(50%) : 수능 100% 일반선발(50%) : 수능40% + 학생부50% + 논술10%
서울여대	다	수능100%
성균관대	가	우선선발(50%) : 수능100% 일반선발(50%) : 수능40% + 학생부50% + 논술10%
	나	우선선발(50%) : 수능100% 일반선발(50%) : 수능80% + 학생부20%
숙명여대	가	우선선발(20%) : 수능100% 일반선발(80%) : 수능40% + 학생부50% + 논술10%
	다	수능100%
연세대	가	우선선발(50%) : 수능100% 일반선발(50%) : 수능40% + 학생부50% + 논술10%
	나	우선선발(50%) : 수능100% 일반선발(50%) : 수능80% + 학생부20%
이화여대	가	우선선발(50%) : 수능100% 일반선발(50%) : 수능40% + 학생부50% + 논술10%
인하대	가	수능100%
	다	우선선발(50%) : 수능100% 일반선발(50%) : 수능40% + 학생부50% + 논술10%
중앙대	나	우선선발(50%) : 수능100% 일반선발(50%) : 수능40% + 학생부50% + 논술10%
한국외대	나	우선선발(50%) : 수능100% 일반선발(50%) : 수능40% + 학생부50% + 논술10%
	다	수능100%
한양대	가	우선선발(50%) : 수능100% 일반선발(50%) : 수능40% + 학생부50% + 논술10%
	나/다	수능100%
홍익대	가	1단계 : 수능100% 2단계 : 수능50% + 학생부40% + 논술10%
	나	수능100%

노명완 채점위원장
"등급별 비율 잘 분포 변별력 큰 문제없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인 노명완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7일 "채점 결과 등급별 비율이 아주 잘 나왔으며 변별력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체 총평은.

▲예상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등급이 잘 분포됐다. 학생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 생각한다. 수리 가형 역시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1등급이 4%대로 잘 나왔다. 첫 시도인데 등급이 잘 나와서 다행이다.

-수리 가형의 경우 2등급 비율(10.08%)이 기준치(7%)를 초과하고 3등급(9.55%)은 기준치(12%)에 못 미쳤는데.

▲2, 3등급이 기준치와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상했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1등급이 4.16%가 나왔다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영역별 1등급 학생 비율이 6월, 9월 모의평가 때보다 낮아졌는데.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본 수능 때는 반수생·재수생 응시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모의평가 때보다 상위 그룹의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다. /연합뉴스

■등급별 학생수 및 비율 (언어·수리)

• 언어영역

등급	도수(명)	비율(%)
1	23,693	4.31
2	43,478	7.91
3	60,919	11.08
4	92,557	16.84
5	116,450	21.18
6	91,002	16.55
7	64,820	11.79
8	35,812	6.51
9	21,000	3.82

• 수리영역

등급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1	5,103	4.16	15,952	4.16
2	12,346	10.08	26,484	6.90
3	11,699	9.55	48,724	12.70
4	22,447	18.32	62,811	16.37
5	23,696	19.34	79,851	20.81
6	19,347	15.79	66,732	17.39
7	14,642	11.95	41,623	10.85
8	8,489	6.93	26,356	6.87
9	4,764	3.89	15,167	3.95

• 외국어(영어) 영역

등급	도수(명)	비율(%)
1	23,502	4.32
2	41,729	7.67
3	62,432	11.48
4	96,995	17.83
5	103,988	19.12
6	93,620	17.21
7	65,381	12.02
8	36,843	6.77
9	19,455	3.58

• 제2외국어·한문 영역

등급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1	219	4.80	349	7.20	150	7.81	997	7.11
2	521	11.43	237	4.89	70	3.65	817	5.83
3	323	7.08	611	12.60	225	11.72	1,546	11.02
4	784	17.20	782	16.13	350	18.23	2,457	17.52
5	902	19.79	931	19.20	394	20.52	2,783	19.84
6	851	18.67	891	18.37	330	17.19	2,244	16.00
7	537	11.78	654	13.49	258	13.44	1,837	13.10
8	251	5.51	208	4.29	86	4.48	962	6.86
9	171	3.75	186	3.84	57	2.97	381	2.72

등급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한문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1	1,462	4.66	73	5.69	577	4.25	949	5.83
2	2,692	8.59	79	6.16	1,377	10.13	1,223	6.94
3	3,757	11.98	148	11.54	1,351	9.94	2,085	11.83
4	4,926	15.71	276	21.51	2,767	20.36	2,917	16.55
5	6,038	19.26	270	21.04	2,959	21.78	3,624	20.56
6	6,199	19.77	176	13.72	1,804	13.28	3,029	17.19
7	2,985	9.52	137	10.68	1,284	9.45	1,873	10.63
8	2,191	6.99	88	6.86	1,108	8.15	1,300	7.38
9	1,099	3.51	36	2.81	361	2.66	625	3.55

• 사회탐구

등급	윤리		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1	9,324	5.65	2,964	5.15	10,384	4.68	1,705	4.26
2	8,906	5.39	4,430	7.69	15,100	6.81	3,138	7.84
3	23,573	14.28	6,389	11.10	26,022	11.73	5,250	13.11
4	31,356	18.99	9,780	16.99	42,300	19.07	6,876	17.17
5	26,205	15.87	12,484	21.68	48,060	21.67	7,269	18.15
6	30,608	18.54	8,878	15.42	34,149	15.40	6,609	16.50
7	18,326	11.10	7,731	13.43	26,116	11.78	5,563	13.89
8	11,498	6.96	3,331	5.79	11,302	5.10	2,406	6.01
9	5,331	3.23	1,583	2.75	8,340	3.76	1,231	3.07

등급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1	2,304	4.35	10,166	5.81	1,457	4.18	2,634	4.62
2	4,979	9.41	13,486	7.71	3,541	10.16	3,846	6.75
3	5,989	11.32	17,564	10.05	3,614	10.37	7,097	12.45
4	8,828	16.68	31,354	17.93	5,817	16.70	9,833	17.25
5	9,704	18.34	32,774	18.75	7,047	20.23	11,100	19.47
6	9,902	18.71	29,458	16.85	6,431	18.46	10,883	19.09
7	6,123	11.57	24,636	14.09	3,349	9.61	5,500	9.65
8	3,064	5.79	9,699	5.55	2,247	6.45	4,607	8.08
9	2,032	3.84	5,697	3.26	1,335	3.83	1,509	2.65

등급	정치		경제		사회·문화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1	4,446	4.08	5,010	5.95	12,255	5.28		
2	9,216	8.46	4,968	5.90	13,522	5.83		
3	11,873	10.90	11,163	13.25	33,862	14.60		
4	20,374	18.70	14,970	17.77	42,381	18.27		
5	19,506	17.90	16,734	19.86	43,492	18.75		
6	18,633	17.10	13,587	16.13	36,120	15.57		
7	13,878	12.74	10,155	12.05	26,478	11.42		
8	7,254	6.66	4,347	5.16	16,338	7.04		
9	3,778	3.47	3,305	3.92	7,502	3.23		

• 과학탐구

등급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1	6,881	6.27	8,818	5.11	9,668	5.66	5,194	4.46
2	7,491	6.83	12,013	6.96	9,517	5.57	9,590	8.24
3	11,066	10.09	19,467	11.28	24,008	14.05	12,760	10.96
4	19,563	17.84	29,729	17.22	27,637	16.17	22,152	19.03
5	21,227	19.35	36,805	21.32	35,329	20.67	21,649	18.60
6	19,362	17.65	30,885	17.89	26,274	15.37	19,718	16.94
7	12,214	11.14	18,421	10.67	22,115	12.94	14,338	12.32
8	8,230	7.50	9,631	5.58	10,487	6.14	7,559	6.49
9	3,648	3.33	6,829	3.96	5,876	3.44	3,456	2.97

등급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도수(명)	비율(%)
1	991	5.06	2,772	4.27	4,625	6.14	609	4.07
2	1,290	6.58	5,732	8.83	4,254	5.64	1,330	8.88
3	2,296	11.72	7,028	10.83	9,435	12.52	1,822	12.17
4	3,366	17.18	10,562	16.27	12,643	16.77	2,361	15.77
5	4,165	21.25	14,263	21.97	15,307	20.30	3,094	20.66
6	3,636	18.55	10,825	16.67	13,125	17.41	2,570	17.16
7	2,091	10.67	7,758	11.95	8,589	11.39	1,663	11.10
8	1,128	5.76	3,448	5.31	4,462	5.92	936	6.25
9	634	3.24	2,535	3.90	2,946	3.91	591	3.95

생활 게시판

화촉

▲박진원(영암군 신북 농민회장)씨 3남 정훈(광주일보 판매국)군 김성섭씨 막내 미현양=9일(일) 낮 12시10분 광주대 입구 센트럴웨딩컨벤션 2층 해피홀. 피로연 8일(토) 낮 12시 신북휴게소 부폐.

▲나점님씨 차남 윤재홍군 공준환(전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씨 4녀 숙원양=9일(일) 낮 12시 30분 오페라하우스 1층.

▲이경직씨 장남 승준(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 영상취재팀 기자)군 장병수씨 차녀 미란양=9일(일) 오후 1시 전주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매직홀.

▲이길(전직 교사)씨 아들 용범(광양 중동초교 교사)군 임동섭(법무부 서기관)씨 딸 상미(구례 간문초교 교사)양=9일(일) 오후 1시 운암동 성당.

▲추영조(전 순천지방철도청)씨 장남 형근(순천고 교육행정직)군 유준조(광주유도회 부회장·전 전남고 교사)씨 막내 청하(순천고 교사)양=16일(일) 낮 12시 순천시 동부웨딩문화원 2층 동부실. 신부측 피로연 8일(토) 오후 5시 갤러리아웨딩홀 4층 무궁화홀.

▲김경호씨 장남 용성군 이대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장)씨 장녀 은진양=8일(토) 오전 11시40분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 1층 아이비홀.

▲박경안(전 광주일보 전산국 차장)씨 장남 영수(해남 동초교 교육행정직)군 이현의(조선대 이공대학 교수)씨 장녀 선경(완도중 교사)양=8일(토) 오전 11시40분 상록회관 3층 무궁화홀.

▲윤천혁씨 3남 홍선군 이홍의(광주시 공보관)씨 장녀 명진양=8일(토) 오전 11시40분 에벌루션웨딩컨벤션 1층 세이지홀.

▲정병주(완도 고금초교 교사)씨 장남 동엽(고흥 과역중 교사)군 김판석(해남군청)씨 차녀 은실(운남고 교사)양=8일(토) 낮 12시 30분 상록예식장 4층 장미홀.

▲강남배(전 한국통신)씨 장남 민구(삼성전자 사원)군 김종옥씨 차녀 지혜(학원 원장)양=8일(토) 오후 2시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 1층 아이비홀.

부음

▲윤현숙씨 별세 선경식(민주화운동공제회 상임이사)·경윤(사업)씨 모친상 김효일(삼우FNG 이사)·민병민(민치과 원장)씨 빙모상=발인 8일(토)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250-4410